

AUTHOR 김영재

TITLE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IN 신학지평, Vol.8 (1998)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김영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서방의 가톨릭 교회에서 분립하게 된 개신교 내에서 루터교와 더불어 공존하게 된 교회와 신학의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주의가 역사 속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루터교를 비롯한 다른 교회와 신학적인 전통과 함께 존재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이루고 있으므로, 개혁주의 특징과 윤곽 혹은 그 역할은 다른 교회 및 신학적 전통과의 차이 및 관계를 비교하고 검토할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를 옹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태동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대립적인 관계 및 개신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개혁주의가 존속해 오는 동안 교회사에서 일어난 신앙 운동이나 신학과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교회가 아니고 중세의 교회를 개혁하려는 데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치하게 된 교회라는 의미에서는 물론 종교 개혁 이전의 모든 교회 역사와 신학도 아울러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개혁주의를

* 본 논문은 1998년 10월 30일 본교 개교 50주년·종교개혁 481주년 기념 제2회 국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이해하기 위한 작업은 방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면에다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쓰려다 보니 극히 피상적인 글이 됨을 면할 수가 없다.

1. 개혁주의의 어의(語義) 및 생성의 역사적 배경

유럽에서는 '개혁주의(改革主義)'의 직역(直譯)에 해당하는 'Reformism'이란 말은 없고 'Reformed Church' 혹은 'Reformed theology'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 문화권(漢文化圈)에서 'Reformed'를 '개혁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Reformed'가 붙은 말도 일률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달리 번역하여 사용한다. 즉, 'Reformed theology'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Reformed Church'는 유럽에 실제로 존재해 온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고 '개혁과 교회'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을 통틀어 역사를 의식하면서 개혁주의 전통(改革主義傳統, Reformed tradition)이라고 한다.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주의 교회가 '개혁과 교회'라는 이름을 얻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라는 이름을 얻었다. '개혁과 교회'(Reformed Church)는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의 전통을 따라 그대로 부른 이름이고,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의 교회 조직에서 장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그 특징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루터교(Lutheranism, Luthertum)는 1517년 11월 10일 뢰텐베르크 성 교회당 앞에 95개조의 항의문을 써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교회와 신학 사상이다. 루터교는 루터의 이름을 따라 이름하게 된 반면에,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으로서 보다 확실하게 개혁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그 선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문자 그대로 '개혁

된'(reformed, reformierte) 교회가 아니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임을 표방한다.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은 1523년 1월 29일 쾰리히가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67개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어 스위스와 인접한 여러 도시와 지방과 나라들로 확산되었다. 베른에서는 1528년에 신앙고백을 내놓았다. 베른의 설교자 할러와 그의 동역자 프란츠 콜프(Franz Kolb)가 쾰리히를 비롯하여 부제, 카피토, 외콜람파디우스 등과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바젤에서는 1534년에 제1 바젤 신앙고백서에 이어 1536년에 제2의 신앙고백서, 즉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오는 등 60여 개나 되는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들이 나왔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 제2 세대에 속하는 요한 칼빈으로 인하여 교회의 조직과 신학의 체계를 보다 확고히 갖추게 되었다. 그의 사상을 따르는 교회와 신학을 칼빈주의(Calvinism)라고 하는데 칼빈의 사상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개혁주의'와 동의어(同義語)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영어권 나라에서 더 그러는 것 같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보다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칼빈적(Calvinisch)'이란 말과 '칼빈주의적(Calvinistisch)'이란 말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전자는 칼빈 자신의 사상을 언급하며 사용하는 말이고, 후자는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을 언급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루터교와 개혁주의는 개신교의 두 중요한 교회적 및 신학적 전통이다. 여기에 앵글리카니즘(Anglicanism)까지 포함 시켜 세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루터교는 독일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특히 북부 지방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교세를 이루었다.

종교개혁의 제3 세력이라고 불리는 재세례파들은 신령주의 전통에 속한다. 재세례파들은 종교개혁 당시 20여 개의 그룹이 있었으나 세력이 크지 못하였다. 재세례파는 국가 교회를 반대하고 믿는 자들만의 교회를 추구하는 한편, 신교와 구교 양측을 다 부정했으므로 또한 양측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나머지 더러는 폭력에 호소하는 과격

한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농민소요를 일으킨 토마스 뮐처와 뮌스터에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시도한 멜키올 호프만의 추종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재세례파의 여러 그룹들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다른 많은 교파들과 동등하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역사적인 상황은 종교개혁 당시의 유럽의 역사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르므로 재세례파의 전통에 대한 평가는 자연 다를 수밖에 없다. 재세례파의 전통에 속하는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복음주의 교파 교회로 성장함으로써 미국 교회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개혁주의는 제네바 교회에서 행한 칼빈의 목회 및 신학 활동으로 인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로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독일의 라인 지방, 나사우(Nassau), 벤젤(Wensel),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비롯한 독일 전역과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등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앵글리칸 교회는 종교개혁 초기에는 루터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진 메리 여왕의 개신교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 유럽 대륙으로 피신했던 개신교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1562년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한 이후 다시 귀국함으로써 말미암아 주로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륙으로 망명했던 이들이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앵글리칸 교회의 39개 신조는 개혁주의적 예정론과 성찬론을 따르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은 유럽의 이민들을 따라, 특히 영어권 이주민들을 따라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로 이식되었으며,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온 세계로 확산되었다.

2 개혁주의의 특징

개혁주의자들은 루터교의 개혁자들과 같이 초대 교회로부터 중세 교회를 거쳐 전수되어 온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는 니

케아 신경(325년)과 아타나시우스 신경(500년경)을 기독교의 3대 신경으로 받아들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삼위일체 교리에 충실하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부르짖었다. 교황주의와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는 사제주의, 성만찬의 화체설, 면죄의 관례와 면죄부의 발행, 성상숭배, 미사와 예배 의식에서 비성경적인 것 등을 반대한 점에서 개혁주의는 루터교와 다름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성경만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삼는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내세운 일에 양측의 개혁자들은 목소리를 같이하였다. 루터교와 개혁주의가 다 같이 교회의 개혁을 주창했으므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여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 법했으나, 양측은 다소의 신학적 견해 차이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가장 두드러진 견해의 차이가 바로 성만찬에 대한 견해였다.

1) 성찬과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루터는 성만찬에 그리스도가 몸으로 임제한다는 소위 공체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을 주장한 데 반하여, 쾰빙글리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소위 기념설을 말했다. 개혁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루터가 말하는 공체설이 역시 실체(substance)를 전제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과 그렇게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1529년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쾰빙글리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의 이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회담을 열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그 이후 양측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靈)으로 임재(臨在)하신다는 견해를 말하고 성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며 은혜주시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루터와 쾰빙글리 두 개혁자

의 견해를 조화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칼케돈의 기독교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상호교관(相互交關, *communicatio idiomatum*)된다는 개념과 하나님의 존재의 편재설(遍在說)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이 계신 곳에는 그리스도의 몸도 있다는 견해에서 성찬의 공재설을 역설하였다. 이에 반하여 개혁주의는 유한(有限)은 무한(無限)을 포괄할 수 없다(*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는 합리적인 이해에서 천상(天上)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 몸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다.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두고는 루터교가 자신들의 견해를 견지하는 데에 더 철저하였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오랫동안 성찬식에 개혁주의 신자가 참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루터교가 자신들의 견해를 지키는 일에 개혁주의 보다는 더 도그마적이고 폐쇄적이었다. 루터교에서 신령주의 전통을 존중하는 데 반하여, 개혁주의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해를 존중하였으므로 보다 개방적이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충실하려는 사람이면 해석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용한다는 것이었다. 메리 여왕 때 유럽으로 피신한 잉글랜드의 신자들을 루터교보다는 개혁주의 측에서 환영하였으므로 그들이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루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칼케돈의 결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거나 혼합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는 참 신이요 참 사람임을 재확인하는 일에 머물렀다. 그리고 루터는 그리스도의 직분론(職分論)에서 기독교론을 전개한 적은 없으나, 루터의 신학을 체계화한 멜랑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 구속자(Erlöser), 구세주(Heiland), 왕, 제사장, 목자 등 여러 가지 직명을 들어 말한다. 그러나 칼빈은 칼케돈의 결정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보자의 사역을 구약에서 말하는 세 직분(三職)으로 언급하면서 말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그 직능을 다하시는 분이심을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규명하는 일에 머문 데 반하여, 칼빈은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능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2) 성경에 대한 견해

칼빈이 이런 그리스도관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성경의 책들을 두고 우열을 가린 데 반하여, 칼빈은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일에 더 철저하였기 때문이었다. 종교개혁 교회들이 모두 다 '성경만으로' (sola scriptura)를 내세웠으나 개혁주의의 경우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더 공고히 하였다. 개혁주의는 합리성과 논리를 따라 사고하지만, 인간의 자율적인 사고나 판단이나 신비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일을 단연코 배제하고 성경만을 사색의 근거로 규범으로 삼는다. 성경중심 사상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에 잘 표현되고 있다. 베른 신조(1528년), 제일 스위스 신앙고백서(1536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 등이 계시와 성경을 서두에서 다루고 있음을 발견한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으로 믿는다. 칼빈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판하지 않고 공손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135). 그런데 칼빈은 어디서나 성경 영감과 관련된 사역의 양식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논하지 않았으나, 그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은 그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고있다는 점과 성경은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말하였다(같은 책). 칼빈주의자들이 후에 성경의 영감의 양식(樣式)을 제각기 설명하지만 성경이 말씀한 것 이상은 말하지 않는 칼빈이 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한 것이었다.

3) 교회관

그리스도의 이해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그들의 교회관에도 병행적으로 드러남을 발견한다. 루터는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communio sanctorum)이라고 하는 반면에,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구(機構 혹은 制度, institution)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구라는 개념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개념보다 선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은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기독교강요 IV, 3, 1).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직제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즉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있어서 교회가 성립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앙고백에만 근거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증언자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선 역사적인 교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 차이는 마태복음 16:18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에서 “이 반석 위에”를 루터는 신앙고백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 위”에로 해석하는 데 반하여 칼빈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로 해석한다. 에베소서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심을 말씀한다(엡 2:20).

루터는 또한 종교개혁 초기에 교황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나머지 만인제사장론을 말했으나 칼빈은 그런 말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

다. 쓰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어는 만인제사상론을 언급하고 있으나 성도들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질 뿐,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천명하였다.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은 교직제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는 경건주의자들이 다시금 강조하는 말이 되었으며, 교직제도를 부정하는 그룹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임을 역사에서 알 수 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개혁주의적으로보다는 경건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에, 루터교는 소극적이었던 사실도 양 교회의 교회관과 무관하지 않다. 루터는 교회의 제도에 관심이 적었으므로 루터교는 그대로 감독교회로 머물렀으나, 칼빈은 그와 반대로 교회를 감독교회와 개교회주의 교회의 중간 형태인 장로교회 제도로 개혁하였던 것이다. 교회 역사에서 감독교회는 전제적(專制的)인 교황주의로 발전하였으므로 개혁주의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감독교회 제도를 지양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가 되는 개교회주의 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보편성을 덜 고려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는 개교회주의 제도도 마다하고 두 유형의 중간 형태인 장로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장로교회 제도는 목사가 감독의 기능을 다하는 노회에 속함으로써 노회의 형제들이 서로가 순복하는 가운데 노회가 위임한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회는 목회자가 당회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지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감독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노회들과 함께 대회 혹은 총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치리와 교리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고 피차 순복한다. 말하자면, 개혁주의의 장로 정치 제도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교회의 보편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조화를 기하는 교회 제도이다. 유럽의 개혁파 교회의 제도는 장로회 제도이면서도 노회 업무를 관장하는 직분자를 'superintendent' 라고 하여 4년 혹은 5년간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감독 교회 제도에 약간 가까울

따름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가톨릭 교회, 즉 기구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쇄신을 주창하면서 교회의 개념을 이분화 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의 성장과 동일시함으로써 보이는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에 반하여, 루터는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로 나누어 말하고,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여 말하였다. 완전한 구원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의 모임을 '내적인 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고, 최종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으나 교회에 적을 두거나 출석하는 교인들을 다 포용하는 현실의 교회를 '외적인 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라고 하였다. '보이는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권주의 교회가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면 분리주의 교회가 된다.

칼빈은 교회 개념을 이분화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관여해야 할 교회는 보이는 교회라고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신자들만의 교회'를 추구하는 제세례파를 반대하고 칼빈 자신은 제네바의 시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칼빈의 교회관은 곧 바울의 교회관과 상통한다.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한편, 흠이 많고 불완전한 현실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 상(教會像)을 가르친다. 현실의 교회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교회, 즉,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교회이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현실의 불완전한 교회에 충실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함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말하자면, 칼빈은 '보이는 않는 교회'를 전제하면서도 '보이는 교회'에 충실하고 또한 '보이는 교회'에 충실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한 것이었다.

신령주의의 전통을 가진 경건주의는 제세례파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교회를 추구하므로 그들의 교회관은 분리주의적이다. 한국 교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식한다. 미국 교회가 많은 교파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은 본래 신령주의에 속하는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한 데다가, 같은 신앙고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여러 다른 언어와 민족적인 배경을 따라 제 각기 종족 교회들(ethnic churches)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건전한 개혁주의 교회관을 가지지 못하고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을 가지는 바람에 역사상에 유례를 볼 수 없는 막심한 교회 분열의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건전한 개혁주의 교회관을 가지느냐 분리주의 교회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 혹은 연합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와 교회 정치와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자세와 세계관에도 반영된다. 신령주의자는 현실의 불완전한 교회를 정죄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신앙인들만의 교회'를 추구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자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시인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의 교회를 중요시하며 목회한다. 신령주의는 특별 은총을 강조하고 일반 은총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반면에, 개혁주의는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강조한다. 신령주의는 죄악으로 가득한 현세와 세속의 역사와 문화를 정죄하는 나머지 반지성적이며 반문화적인 경향을 보이며, 영적인 삶에 치중하여 윤리를 소홀히 하는 반면에, 개혁주의는 그러한 현세와 세속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 있음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삶과 함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역사에 참여하며 현세와 문화의 변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개혁주의와 신령주의의 이러한 대응의 차이는 실은 교회관 이전에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의 차이에서 오게 된 것이다.

4) 정의의 교리와 성화의 교리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稱義)의 교리를 말하였다. 바울 이후 교회 역사에

서 그냥 묻혀 지내온 위대한 교리를 발견하고 발굴했던 것이다. 칭의 교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강조한 교리를 더 깊이 천착하며 더 강도 높게 드러내는 교리이다. 그것은 또한 기독교를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는 일반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다. 중세 교회는 은혜의 교리를 오랫동안 망각하고 반펠라기안주의에 근거한 공로주의 사상에 젖어든 바람에 공로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다. 12세기경부터 면죄부 제도가 생겨났으며, 16세기에 와서는 면죄부 발매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인(近因)이 되었던 것이다. 13, 14세기에 여러 신학자들이 다시금 은혜의 교리를 상기하고 논의하였으나 공로주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루터가 성경에서 칭의 교리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중세 교회의 공로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로주의가 상식으로 통하는 중세의 교회적 상황에서 칭의의 교리의 발견은 위대한 발견이었으며, 그것을 발굴한 것은 대단한 작업이었다. 그러므로 루터는 중세의 공로주의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하는 칭의(稱義)의 교리를 강조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나 공로 사상에서 선(善)을 행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혹자는 루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쏟은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정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는데, 루터가 공로주의에 포로가 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루터는 실로 그 일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개척자로서 종교개혁 신학에 큰 물꼬를 트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칭의의 교리를 그대로 받을 뿐 아니라, 은혜의 교리를 더 발전적으로 이해하였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넘어 서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발견하고 찬양하는 신학을 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예정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으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1563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문답서이다. 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신앙교육문답서가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말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셋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부분 때문에 만든 아니고, 문답서 서두를 인간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느냐 하는 문답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 때문에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긴다.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신앙교육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문답서에서는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문답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문답서와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의 자기 중심적 구원이나 사랑이라는 신적 의지의 보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레이스 80).

개혁주의 신학은 사람의 구원을 두고 죄에 대한 회개와 회심과 중생,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서정을 말한다.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에서 성화는 칭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 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에 빠지기 쉽다. 칭의는 성도에게 단 한 번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속하고 마는 사건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상기되고 신선한 감격을 안겨

다 주는 사건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며 성화를 이루게 하는 현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5) 하나님 중심 신학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해야 할 것을 동시에 강조한다. 칭의의 교리가 선행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오해도 있었으므로, 루터는 칭의를 강조하다가 다시금 선행을 강조하고, 그러다가는 칭의의 교리가 약화될까 보아 다시금 칭의를 강조한다. 칭의와 선행, 이 둘을 역설적(逆說的, paradoxically)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칼빈과 개혁주의에서는 성화의 교리로 더 체계 있게 설명한다. 루터가 칭의의 교리에 집중한 반면에, 칼빈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의롭다하시며 성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주로 관심을 둘 경우보다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만물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적인 경륜과 역사에 대하여 찬양하게 마련이다.

개혁주의는 구원의 하나님을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죄 아래 버려져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시다. 개혁주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중하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고 크심을 사색하며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

리의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식한다. 하나님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세와 같이, 자신의 구원 문제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신의 죽고 사는 일과 영원한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개혁주의 신앙자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6) 예정교리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예정 교리를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의의 교리를 예정과 성화의 교리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견인(堅忍)의 교리로 발전시켜 생각하였다. 츠빙글리(Zwingli)는 예정론을 말한 신학자들과 어거스틴주의자들의 신학을 좋아하였으며, 불링어(Bullinger)도 온전한 편이기는 했으나 역시 그러하였으며, 파렐(Guillaume Farel)과 비레(Pierre Viret)는 예정론이야말로 복음의 중심 교리라고 생각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예정론은 부제(Bucer)의 신학 사상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버미글리(Pietro Martire Verrigli, Peter Martyr)의 신학에서도 예정론이 가장 중요한 교리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개혁주의자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한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정론을 어렵지 않게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예정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음이 현실이다. 드디어 예정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1603년 아르미니우스(Jacob Amminius)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이 강조

한 예정론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예정의 교리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시할 뿐더러 하나님을 죄의 원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미니우스의 이러한 견해는 로마 가톨릭의 트렌트 회의의 견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중세교회는 오렌지(Orange) 종교회의(Arausicanum, 529년)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은혜의 교리를 신조화(信條化)하는 등 한 때는 그 교리를 받아들였으나 어거스틴주의를 약화시킨 그레고리 대교황 이후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를 망각하고 인간이 선행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반(半)펠라기우스주의를 견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에 대한 예지(豫知)에 근거하여 작정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예정 이해에 도전하였다. 그의 사상에 동조하는 아르미니안들은 자신들을 항론파(抗論派, Remonstrants)라고 칭하고 5개 조항으로 그들의 신앙을 발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1618년 도르트 노회를 열어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확인하는 신조를 작성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聖徒의 堅忍) 등의 소위 칼빈주의 5대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 교리를 믿는 데 근거한 것이다.

7)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개혁주의의 하나님 중심 신학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므로 창조 세계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음을 인정한다. 일반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한다. 자연 계시를 인정한다면 자연신학도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토마스 아퀴

나스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의 유추(analogia entis)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연신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응답인 인간의 인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땅히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당신의 신성을 계시하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자연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신성을 보여 주셨으나 타락한 인간은 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길 뿐이다(롬 1:20).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한 신자는 비로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임을 인식한다(시 19, 148).

8)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개혁주의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말함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과 만민에게 땅 위에서의 삶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일반 은총의 개념을 배제하려는 이도 있다. 그러나 특별 은총과 자연 은총의 구분이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의 구분과 형식에 있어서는 병행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병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보여 주시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옳게 인식할 수 없으며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인식할 때 비로소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사람과 모든 만물로 하여금 생성하게 하시며 생존하고 존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이 인식하든 않든 간에 만물이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계시의 경우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연 계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은총의 경우는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삶에서 구원의 은총을 덩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미

우리는 삶과 모든 것, 즉 일반 은총이 어디서 누구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는지를 알도록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를 깨달아 확실한 지식을 얻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배려와 은사가 특별 은총이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신칼빈 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을 강조하여 신자들이 정치와 사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을 훨씬 광범하게 이해하였다.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창조에 관여하시며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언급은 칼빈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카이퍼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훨씬 더 부연해서 말한다. 카이퍼의 이러한 성령론은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함과 더불어 일어나게 된 당시의 부흥 운동과 부흥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론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칼빈에게서도 이미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를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지만,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이후 국가와 종교를 구분하는 개혁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로마 가톨릭 신앙을 대변하는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개혁주의교회가 왕성한 국가로 출발한 나라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대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사회와의 상관 관계에서 달리 나타났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칼빈주의(Neo-Calvinism)가 일어났던 19세기에 이웃 나라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신개신교 사상(Neo-Protestantismus), 혹은 문화 개신교 사상(Kulturprotestantismus)을 주창하던 때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신칼빈주의 운동에 대하여는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으나,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좇아 기독교 윤리를 실천한다면, 문화의 변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교회를 국교로 하는 종교 획일 정책 아래 소극적으로 꺾박을 받는 데 머물렀으나, 뉴 잉글랜드로 간

청교도들은 새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이상으로 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개혁에 주역으로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일반 은총의 교리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정치와 사회에의 참여 및 문화의 변혁을 위한 사상을 펼쳤으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사고는 별로 없었다. 그간에 신학자들은 구원론에 관심을 집중했으며, 창조 역시 인간 중심적인 이해에 머물렀으며, 일반 은총의 교리로 과학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을 지지하는 일에 봉사하였다.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관하기 시작하였으며, 보수적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적인 구원을 바라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구원을 중심하는 생각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기독교 윤리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흠으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사람에게 생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하신다(창 1:22, 1:28).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언약을 세우시며(창 9:8-17),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서 찬양을 받으신다(시 148).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주를 찬양하며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신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의 근거를 여기에 두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씀은 문화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에 생존하도록 주시는 축복이요 축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에의 참여를 위하여 구태여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신칼빈주의에 이견을 가진 이들은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므로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논리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과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린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폐하여진 제사와 종교 의식의 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와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제 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고 의의 종으로서 지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노아 홍수 후에 되풀이되고 있다(창 9:17).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에 대하여 다스리고 보살피는 인간 본래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9) 종말 신앙

개혁주의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또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세상의 종말을 믿는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신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각기 달리한다.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은 배격하지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다 용인한다. 어거스틴 이후 중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신앙을 정죄하였다. 루터와 칼빈도 어거스틴의 견해를 같이하며, 루터교와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은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따르고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대다수가 역시 그러하다. 한국에서는 전천년설이 우세한 것은 신령주의, 경건주의, 세대주의,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3. 개혁주의 신학과 목회 실제

구원론을 두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주로 관심을 두는 신학적 경향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신학적 경향, 이 둘이 개신교 역사에서 두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초기의 루터와 경건주의, 그리고 경건주의에서부터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복음주의가 전자의 것이고 개혁주의가 후자의 것이다. 경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한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자부한다. 경건주의와 복음주의가 관심을 두는 것이 사람의 회심과 중생,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구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는 회개와 중생의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관심은 루터가 칭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경건주의자들은 교회관을 두고도 교회를 “성도의 모임”으로 보는 루터의 교회관과 만인제사장론에 영향을 받아 이를 더 극단화하여 이해하고 적용하였다. 경건주의는 제도적인 교회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교회 안의 교회의 모임을 가졌으며, 현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경건주의자들의 한 그룹인 ‘모라비안’들과의 접촉에서 웨슬레(John Wesley)는 자신이 중생(重生)을 체험하였으며, 18세기 잉글랜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감리교 부흥운동에서 파생된 한 교회 그룹을 지칭한데서 나온 말이었다. 도이치인 올브라이트(Jacob Albright, 1759-1808)가 감리교로 개종하여 설교자가 되어 추종자(追從者)들을 모아 복음주의자 협회(Evangelical Association)라는 교회 그룹을 만들고 1807년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원론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그러한 신학을 가진 이들을 복음주의자(Evangelicals)라고 부

르며, 그들의 사상을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고 하게 되었다.

복음주의 신학에 보탬이 되고 영향을 준 것이 알미니안주의이다. 합리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를 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주의자들도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절대주권보다는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인간이 자의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경건주의 및 복음주의의 신앙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청중들에게 자의적인 결단을 강렬하게 촉구하면서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부흥운동에 참여하고 그 운동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의 취약점을 우리는 안다. 회심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호소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신비적인 신령주의에 기울어진다. 복음주의는 지나치게 구원론을 중심으로 신학을 체계화하려는 잘못도 범한다. 예를 들면 세례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부수적(附隨的)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중요성을 두고 교회론적으로 보지 않고 구원론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선교와 봉사를 강조하는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중심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오도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思考)에서 만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내포한다. 주관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나머지 예배도 성례도 자신들에게 은혜로운 감정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경향에 빠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성찬식을 오래간만에 하면 더 은혜롭다거나 자주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은혜로움을 덜 느끼게 되므로 이따금씩 한 번 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예배와 성례는 우리의 은혜로운 감정에 따라 자주 혹은 가끔 행하도록 결정 지워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신학 내용이 개혁주의에 비하여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는 부흥운동의 산물이며 부흥운동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 역사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느냐 하는 관심을 넘어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고전적인 개혁주의자들은 부흥운동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미국의 장로교와 회중교회는 부흥운동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한 때 분열을 겪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전통에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면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점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그 전통을 존중하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고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다운 신학이다. 그러나 신앙의 초보자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네바 신앙교육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문답의 제1문의 문답은 아직 먼 단계에 있는 문답이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종교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호소력을 가진다. 이러한 질문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의 질문이다. 복음주의가 개혁주의보다는 이러한 질문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전도와 선교에 더 큰 열심을 보였으므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주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는 성인 세례는 없고 유아 세례만 있다. 국민 전체가 기독교 신자이며 1960년대만 해도 국민의 50%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도시에 따라서는 주민의 90%가 참석하였다. 19세기에는 예배 참석률이 더 나았음은 물론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전도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목회자는 회심을 촉구하는 등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성화(聖化)를 위한 보다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설교를 하게

마련이다.

영국에서 웨슬레와 윌트필드가 주도한 부흥운동이 주로 교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 확산되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미국에서 각성운동에 대한 호응이 지적이며 중산층의 사회 계층보다는 그렇지 못한 계층에서 더 컸음을 보게 된다. 18세기와 19세기의 미국 사회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다양한 종족들이 여러 다른 목적으로 이민해 와서 사는, 변화가 많은 사회였다. 복음 전도를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사회였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교회인 감리교와 침례교가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성장한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려고 한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다. 그것은 20세기의 오늘에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회(OPC)나 개혁파 교회(CRC) 등은 성장을 못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이 19세기를 지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진화론과 과학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사회 계층이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교회는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여 소위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종교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므로 신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신학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중심 신학만을 말하고 설교한다면, 그 신학이 아무리 깊이가 있는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하는 스콜라적인 사변 신학이 될 뿐이다.

성령론을 두고도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의 사역에서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성도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더 많이 말한다. 그리고 사람의 회개와 회심을 위하여 때에 따라 필요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은사

주의는 배경해도 성령의 은사는 성경대로 존중해야 한다. 회개와 회심의 사건은, 비록 그것이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극적인 사건이요 기적이다. 그와 반면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그것이 배태된 세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므로 자연스런 성장으로 인식된다.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회심을, 즉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만 성화만을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적인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그만큼 덜 경험하기 마련이다. 회개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화를 위한 설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설교가 될 뿐이다. 그러한 설교와 신학만으로는 회심은 물론이고 성도의 각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멈추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중심하며 성화에 역점을 두는 개혁주의 신학이 신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신학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인 반면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미숙한 신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신학이 되지 못한다. 예정론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교리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직 신앙하는 일에 미숙한 신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 및 교회성장에는 개혁주의 신학보다는 복음주의 신학이 더 주효했던 것은 충분히 수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 인구가 아직 20% 밖에 되지 않는 다원종교 사회이다. 교회는 아직도 성장 도상에 있으며 선교의 과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네덜란드의 목회자처럼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하여 설교하며 교인들을 돌아보는 "Seelsorge" 개념의 목회만을 할 수는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과업도 아울러 감당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선교지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전도 설교가

필요하며 주효하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개혁주의 신학 역시 소위 복음주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본래 균형과 체계를 갖춘 신학이지만, 다른 신학과 차별되는 특성을 말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정론 등 논란이 되는 교리를 변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학을 더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특징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가 내포하는 복음주의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성화를 위한 설교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답게 자라야 한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신자들이 많은,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야 한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기뻐하며, 모든 분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는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안녕과 생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지향해야 한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므로 그 일을 기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나 병상에 있는 환자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을 중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예정(豫定)과 견인(堅忍)의 교리를 성경대로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학은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준다. 견인의 교리는 제삼자의 구원 문제를 두고 사변하도록 허용된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두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리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하는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죄를 범한 인생을 찾아 오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원 받은 백성들과 천사들과 찬양하는 만물과 더불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다.